

총기 53년 (2024년) 새해 종령 법어

대자대비 실천 위한 정진의 등불 켜시다



종령 법공 대중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용은 예로부터 힘과 용맹, 지혜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설에 어려움을 극복한 이무기가 용이 되어 모든 난관을 이겨내는 이야기는 우리 종단은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에 처한 한국 불교 모든 종단에 용맹정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영감을 줍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에는 이러한 용의 기운을 담아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전달하여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계묘년 한 해가 지나고 갑진년 한 해가 시작되듯 세월의 흐름과 그 자연의 섭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 속에는 생과 멸이 공존하듯 단체나 개인 또한 발전과 퇴보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갑진년 한 해는 종단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종단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갑진년 새해 아침 지평선 넘어 떠오르는 희망찬 태양처럼,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과 자리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끝으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 원력으로 불자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53년 갑진년 새해 아침
종령 법공 합장

불교총지종 제 51주년 창교절 법회 봉행

종령 예하, “교화방편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할 때”



창교절 기념법회가 12월 24일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사진=총지사 서원당

총기 52년 12월 24일 창교절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법회가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종조 원정대성사는 1972년 12월 24일 ‘법신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을 본존으로 하여,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 경전으로 삼아,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을 포함하는 입교개종의 정신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시시불공, 처처불공범으로 생활시불범 불범시생활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움으로써 교상이 확립되고 입교교의를 이에 두었다.’고 천명했다. 3면으로 이어짐

갑진년 통리원장 신년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래 무시무종이라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 보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인간의 바람일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동안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대아적인 나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화엄경에 인드라마는 법계 일체 현상이 서로 서로 끝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인드라마의 수많은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어 광채를 더하며 중중무진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여러 전쟁을 통해 생명경시의 참혹한 상황이 지속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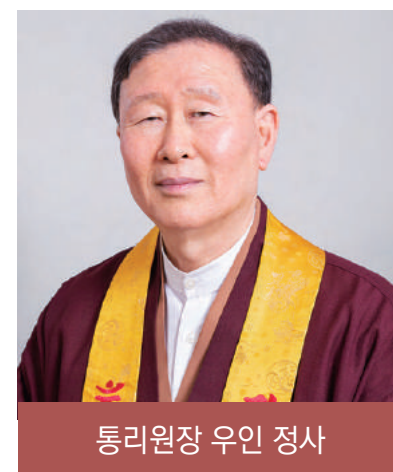
고 있으며,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환경 위기의 위험 속에 탐욕의 인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중중제망의 그 물망을 흘뜨려서 그 빛을 잃게 하여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한 마음을 받들어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살리고 나와 내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질 때 제망의 광채는 다시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들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원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 정진을 할 때 비로소 불교정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과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인류

대승적인 서원을 세우자



통리원장 우인 정사

를 위한 대승적인 서원을 세워 봅시다.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비실천으로 온 세상에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53년 1월 1일
통리원장 우인 정사

종/조/법/어

하루 동안 행복함은 새벽 불공함에 있고, 칠일동안 행복함은 자성 불공함에 있고, 한 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 불공함에 있고, 일 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 불공함에 있다.

지 면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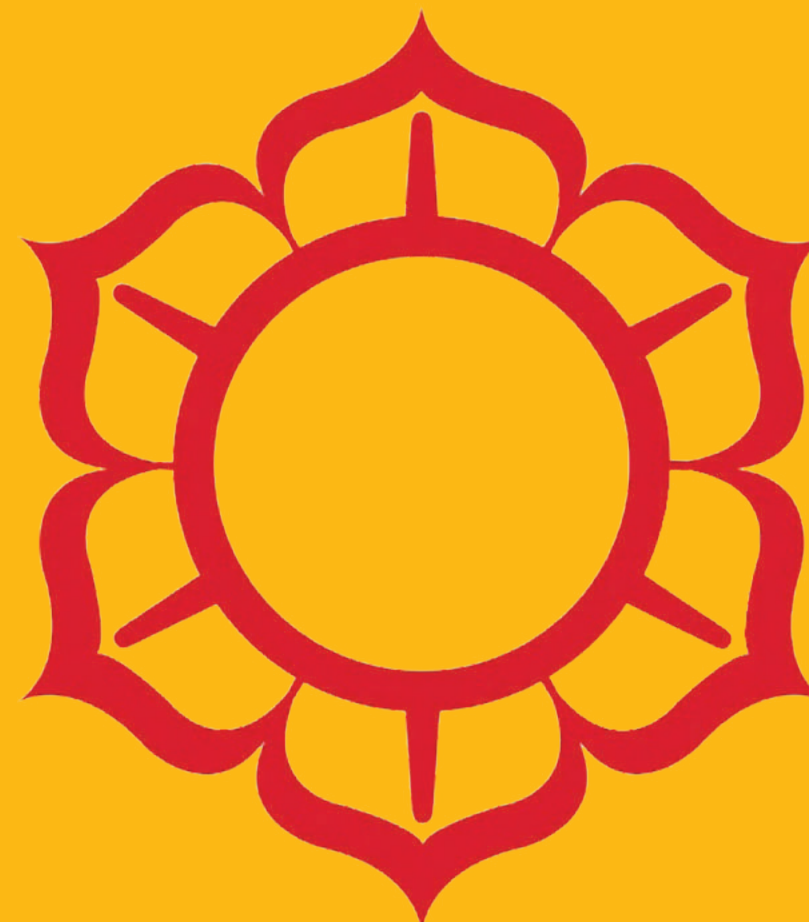
2면 교계 신년법어
7면 신년기획 - 발원합시다

5면 종단 신년사
8면 밀교법장담론

총기 53년 신년하례 법회 봉행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 짜 _ 총기 53년 1월 11일(목) 오후 1시
장 소 _ 본산 총지사 서원당
참석 대상 _ 스승 및 사부대중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자타 본래 한 몸 자각하면 세상 모두가 소중한 인연

影閣(영각) 앞 慈藏梅(자장매)가 잎을 떨구고 겨울을 지내는 것은 향긋한 봄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며, 금강계단 앞을 흐르는 계곡물은 산중의 소식을 세간에 전함이라.

대중이 모여서 삼동결제를 하고 理事(이사)가 화합하며 정진하는 일은 출격장부를 배출하여 火宅(화택)의 뜨거운 불길을 식혀주며, 갈증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甘露(감로)를 베풀기 위함이라.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면 예토가 바로 정토요, 모두에게 구족한 自性淸淨心(자성청정심)이 드러나니 질병은 저절로 소멸되며, 위기는 기회가 되다. 대립과 갈등이 自他(자타)가 본래 한 몸임을 자각하면 세상 모두가 참으로 소중한 인연임을 알게 되었다.

번뇌 그친 곳에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가 現前(현전)

하고, 모든 이들이 행복할 터전이 마련되다.

細思乃不然(세사내불연)하고
眞巧非幻影(진교비환영)이로다.

欲令法語妙(욕령법어묘)인데
不厭空且靜(부염공차정)이로다.
靜故了群動(정고료군동)하고
空故納萬境(공고납만경)이로다.

자세히 생각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진정한 고요함은 환영이 아니라네.

오묘하고 묘한 법어를 만들려면
공과 정을 싫어하지 않아야 하네.

고요하기에 모든 움직임을 이해하고
공하기에 모든 경계를 포용한다네.



대한불교진각종 종인 경정 정사

세상사 아픔 보듬고 지친 마음 치유하길

태양은 여전히 광명을 놓아 새해를 열고 군생은 새날의 희망을 소담하게 다집합니다. 하늘과 땅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 서리니 선남선녀 마음 여미고 맑은 서원 세웁시다.

과학문명 혜택에도 갈등과 분쟁은 늘어가고 물질발전 풍요 속에 빈곤과 차별이 깊어져도 물질문명 다스리는 본연(本然)의 마음 되찾으면 이곳이 평화세계라고 심인진리 일깨워줍니다.

진리세계는 본래 상호 의지하여 생멸하고 못 생명은 서로서로 은혜 활동의 산물이니 누검(累劫)의 중

생 번뇌를 청명하게 견어내면 앞집 뒷집 누구나 다 평등한 이웃입니다. 세간사 여기저기 미움과 다툼이 끝없어도 은혜의 이치 깨치면 화해의 기운 우리나서 나라나 사회마다 함께 사는 동네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이 웃음꽃 터전이 됩니다.

근본을 앞세우면 지말(枝末)은 절로 따라가니 제각기 고마운 마음을 지금 먼저 돌려주고 정치와 경제도 바른길 본받아 걷게 하여 은혜 누리며 회향(廻向)의 세상을 열어봅시다.

새해에는 청량한 기운이 세상사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은혜의 큰 품으로 감싸서 감남을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희망을 피워봅시다.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도옹 스님

무량 공덕의 보배 탑을 쌓으라

포기하지 않는 그 순간 거룩한 부처님의 미소를 보리라.
어려움 속에도 한줄기 희망이 비추리니 불보살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어 늘 새롭고 새로운 시절을 만나리.

인류의 평화와 국태민안을 염원하며 오직 깊은 신심으로 일심청정 수행에 힘써 무량 공덕의 보배 탑을 쌓으며 성불의 길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중생의 마음에 불성이 빛나고 부처님 품에는 중생이 있으니 모든 생명이 존귀하여라.

고통 받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작은 선이라도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행복과 평화 나누는 길잡이 됩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지구는 서로 공존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온 세상이 인드라마이며, 지구라는 한배를 탄 동체대비의 한 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인지 모르기에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하며,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적 존재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이웃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임을 깨쳐야 합니다.

지구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평화롭지 않으면 내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과 평화를 나누는 길잡이가 됩시다.

갑진년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온 산하대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밝은 태양은 지혜와 깨달음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그러나 소외된 세계인의 마음 속엔 아직 새해 밝은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고도화된 이 시대에 지구촌의 한쪽에서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굶주림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윤경 스님

일일시호일이면 년년대호년입니다

평생을 바르게 잘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일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고 착해지면 그들이 사는 세계도 아름답게 장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독한 신심으로 세상을 보다 밝게 만들고 메마르지 않고 인정이 도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정화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심이 돈독한 참 불제자로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원력으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돈독한 신심으로 부처님이 됩시다. 그럴 때 년년대호년(年年大好年) 갑진년 좋은 한해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속은 날을 헤아리고 달을 보내며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일일호일(日日好日) 월월선명월(月月善明月) 년년대호년(年年大好年) 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날이 우리가 바르고 참답게 살면 하루하루가 모여 한달 한달이 역시 더 좋은 달이 되고 그 좋은 달들이 모여서 더 좋은 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 사는 것이 한 해를 잘 사는 것이고 나아가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전국 사원, 종조 원정 대성사 창종의 뜻 되새겨

1면에서 이어짐

창교절을 맞이하여 본산 총지사 범회에 참석한 종령 범공 예하는 스승님과 교도들이 다 함께 원정대성사님의 창종의 뜻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지은덕과 종조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 창종 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용맹정진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당부와 함께 법어를 내렸다.

유시문에서 종령 예하는 “세상일은 무상하니 생한 것은 멀하고, 나타난 것은 변

하는 법이다. 인연이 다하면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전법은 멀하고 후법은 생기는 것이 불법의 요체이다.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마음에 미움을 담지도 말라. 법계는 어려움으로 복을 주고, 수행하는 이는 재앙을 스승으로 삼는 법이니 이 일이 후에 크게 좋은 길을 열어준다고 믿어야 한다.”는 종조님의 말씀을 인용해 “원정대성사께서 시대에 따라 제생의세의 방편이 달라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화방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제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고 종단의 최우선 과제를 교화의 활성화에 두고 시의 적절한 교화방편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할 시기다.”고 전제하고, “원정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과거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자.”고 법문했다.

전국 사원의 창교절 범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이 자리를 빌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한마음으로 서원했다.

박재원 기자

대천세계 우렁찬 총지의 소리 울리다

창교절 기념,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 발표회 성료



“창교절을 맞이하여 준비한 총지종의 보물 마니합창단의 음성공양을 환희심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현 전수(밀인사)의 사회로 시작된 마니합창단(단장: 최해선)의 합창발표회가 창교절을 맞아 서울 총지사 서원당에서 개최됐다. 서울과 경인지역의 총지종 산하 8개 사원의 교도들로 구성된 마니합창단은 김양희 지휘자, 이지선 반주자와 함께 호흡을 맞춰 이날 수희찬탄의 음성공양을 올렸다.

합창제에는 범공 종령 예하를 비롯해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스승, 교도들과 함께 서울경기남연합창단 임원진, 위즈덤 합창단 단원 등 사부대중 1백 50여 명이 참석해 서원당을 가득 메웠다. 합창단과 관객들은 무대를 여는 노래로 ‘창교가’를 함께 부르며 종조 원정 대성사의 창종 정신과 가르침의 뜻을 되새겼다.

이날 무대에서 마니합창단은 ‘임마중꽃’, ‘산은산 물은 물이로다’, ‘마음’ 등 찬불가 여섯 곡을 선사했다. 또 대중가요 ‘바람’, ‘아침의 나라’, ‘내 나이가 어때서’를 관객과 어울려 부르며 신나는 무대를 꾸미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합창제는 수원사 남성중창단 ‘사자후’와 동국대학교 동문 중창단 ‘동행’의 찬조 공연으로 창교절과 합창제의 축하의 마음을 더했다.

종령 예하는 “다함께 마음을 맞춰 부처님을 노래하는 것 또한 진언염송과 같은 소리의 수행”이라며, “일상생활을 하며 연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창교절을 맞아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감동을 주어 대단히 고맙다.”고 격려했다.

최해선 단장은 “잘 때도 이어폰을 끼고 노래 가사를 외우고, 휴한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주신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합창제를 계기로 우리 단원들도 더욱 신심을 모으고, 종단의 교화 발전에 보탬이 되는 합창단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재원 기자



무아론(無我論)

지혜의 눈

자아의 실재론에 대해 비실재론적 입장 연기와 같은 수평적 관계만이 공생 가능

북인도의 평원은 강가(Ganga)강이 흐르는 비옥한 농경지대입니다. 아리아족이 기원전 1,500년 경 서북인도로 침략해오고 기원전 500년경에는 강가강 하류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목민이던 아리아족은 점차 농경민으로 변화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인도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과 우경(牛耕)의 보급은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와 수많은 도시국가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도시국가를 산스크리트어로 자나파다(janapads)라고 하는데 정복 전쟁을 통해 마하자나파다스(Mahajanapadas)로 재편됩니다. 이를 한역불경에서는 16대국(大國)이라고 하고, 여기에 부처님이 주로 머무시고 전법활동을 하였던 나라로 코살라국이나 마가다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마하자나파다스가 마우리아 왕조에 의해 통일이 되었고 아쇼카 왕에 의해 불교가 널리 전파됩니다. 그리스는 알렉산더 제국으로 통일되었고 중국은 진(秦)에 의해 통일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의 기간 동안 유라시아 대륙의 전역에서 비슷한 역사적 전개가 일어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대국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사제 계급인 브라만을 대신하여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로 크샤트리아(ksatrya)계급이 부상하고 경제적 발전에 따라 상공업에 종사하는 바이샤 계급의 역할도 확대됩니다. 따라서 제사장인 브라만 중심의 사회질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종교운동이 전개됩니다. 비슷한 시기의 그리스와 중국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도는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종교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베다의 제사중심에 대한 비판으로 출현한 것이 우파니샤드입니다. 그 성립은 베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의(祭儀)를 통해 신의 은총을 바라는 베다 중심의 전통적인 흐름과 수행을 중시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분화됩니다. 이 수행

중심의 새로운 종교개혁의 내용의 핵심단어가 슈라마나(Sramana)라고 합니다. 이를 한자로 음역(音譯)한 것이 사문(沙門)입니다.

슈라마나는 ‘더 높거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거나 수고하거나 노력하는 사람’ 또는 ‘구도자, 금욕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슈라마나 전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불교와 자이나교입니다. 이들은 상사라(samsāra, 탄생과 죽음의 순환)와 Moksha(moksha, 그 순환으로부터의 해방)와 같은 개념을 인도의 다른 종교와도 공유하고 있지만 베다적 전통의 종교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라마나 전통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를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론에서 자유의지로의 변화와 아힘사(ahimsa), 그리고 무아(無我)입니다. 신에 대한 제의를 통해 은총을 바라는 결정론에서 수행을 통해 궁극의 경지로 나아가려는 자유의지의 강조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불해(不害) 또는 비폭력으로 옮겨지는 아힘사는 인류역사의 가장 큰 오점인 전쟁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자아(自我)의 실재론에 대해서 무아(無我)의 비실재론적 입장은 어쩌면 같은 슈라마나 전통을 공유하는 자이나교와도 다른 불교만의 독특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설(緣起說)은 모든 것로부터 독립된 실체란 없다는 주장인데 이것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아론(無我論)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다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아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중심의 기준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는 갈등을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기와 같은 수평적 관계만이 공생(共生)을 가능하게 합니다.

총기 53년 갑진년 새해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_ 총기 53년 1월 1일(월) ~ 1월 7일(일)
장소 _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서원당





중앙종의회 의장 법상인 전수

나 자신부터 보시와 자비 실천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한국 사회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갑진년 새해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함께 극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베풀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

다. 사회 제도로는 보완하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에 나 자신부터 보시와 사랑으로 자비를 실천한다면, 그 원력의 힘이 사회 화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동력의 바탕은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불교 정신이어야 합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법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진정으로 실천해 나아가갈 때 행복으로 가득 찬 불국정토가 될 것입니

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나누어 가지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하여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여 불국정토로 만드는데 앞장섭시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록경 정사

정법을 실천하며, 정도를 걷자

성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한 청룡의 해 갑진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설에 용이 도(道)를 깨치면 비늘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하여 청룡이 된다고 합니다. 용이 도를 깨우쳐 청룡이 된 갑진년을 만나 우리 불자님들도 도를 깨쳐 실천하는 것에 도전해 봅시다.

도란 무엇일까요? 그냥 바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고행으로 수행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를 깨우친다함은 도리를 지키며 사는 바른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깨치는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친 것을 현실 생활에 적용, 활용했을 때야말로 그 깨달음의 가치가 실로 무궁무진하게 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가 등한시되고, 오직 물질의 노예가 된 세상입니다. 탐진치(貪瞋

癡)로 인해 가족이 와해되기도 하고, 인간의 문제를 넘어 자연 파괴로 지구전체가 오염되어 유정물과 무정물 모두가 아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차는 차도로 가고 사람은 인도를 걸으면 사고 날 일이 없듯이 우리 중생들의 인생길 또한 전생업으로부터 현생에 이르러 이 순간까지 지은 업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 제각각 다른 건 당연한 이치인 것을,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독선과 아만에서 비롯된 갈등과 반목, 대립과 분열이 사납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법신 부처님께서는 당체법문으로 해탈의 길, 진리의 길, 행복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제시된 길을 선포 나서지 못하고 설령 나섰더라도 꾸준히 가지 못하니 도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갑진년 첫해가 밝은 지금이야말로 그간 수행정진하여 쌓은 법력을 발휘하여 동체대비를 실천해야할 적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우주 자연의 법칙인 인과를 믿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한 뿌리임을 새로이 자각할 기회입니다. 지족이라는 보물, 지혜라는 등불, 반성이라는 거울을 소지하고 각자의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반드시 자성 부처님을 찾을 수 있음은 물론, 상생도약하여 모든 생명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종조님께서 강조하신 중생교화의 무진등, 고해중생의 안정제, 세계평화통일의 원동력은 우리 불자들이 정법을 실천하여 정도를 걸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갑진년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세방방곡곡에 널리 퍼져 불국정토에 법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부산경남교구 교구장/사감원장 법일 정사

탐욕심을 보시 공덕으로 승화하자

삼보은혜, 나라은혜, 부모은혜, 중생은혜에 감사합니다. 중생들 마음에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명이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불기2568년 (서기2024)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고 가내 화평하기를 기원합니다.

중생인 우리는 누구나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워질수록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무력감 등이 발생하여 이미 질병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풍요로움’을 뜻하는 낱말 **affluence**와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단어인 **influenza**를 합성하여 ‘어플루엔

자’ **affluenza** 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소비중독 바이러스라 할 수 있습니다만 불교용어로 하자면 탐욕심 정도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어플루엔자는 사회병리현상으로 삶에 대한 무력감, 채워지지 않는 갈망, 쇼핑중독, 만성스트레스 같은 다양한 병후가 사회전체에 만연하게 되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종조법설집에 ‘애착심이 화(化)하여서 평등심이 되게하고, 탐욕심이 화하여서 희사심이 되게하며, 진애심(眞慈悲心)이 화하여서 화합심(和合心)이 되게하고, 우치심(愚痴心)이 화하여서 일체지혜 밝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내는 마음으로 지은 중한 죄를 마음

속 깊이 참회하며 중생에게 베푸는 보시의 마음 그 공덕을 오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고 우리 진언행자들은 매일 심선회향에서 ‘탐심 중죄 지심참회 보시공덕 금일성취’를 서원하며 탐욕심을 보시 공덕으로 승화하여 일체지지를 밝히는 실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병리현상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 지금 머무는 이곳이 곧 극락이요 깨달음의 세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밝아오는 태양과 같이 대비로자나불의 자비광명이 교도 가정마다 화평과 평안이 되기를 바라며 교도 모두 건강한 신행생활이 되시기를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법상 정사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진하는 한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살님들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물질 위주의 삭막한 현실 속에서 탐진치에 물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불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

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정화를 바탕으로 가정 화목과 사회와 국가를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선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인!
교도 여러분의 지도가 되자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일로 19-39(명륜동) Tel.051-555-4456

경전번역·의궤제정·스승 교육에 전념…진각종 선교로 추대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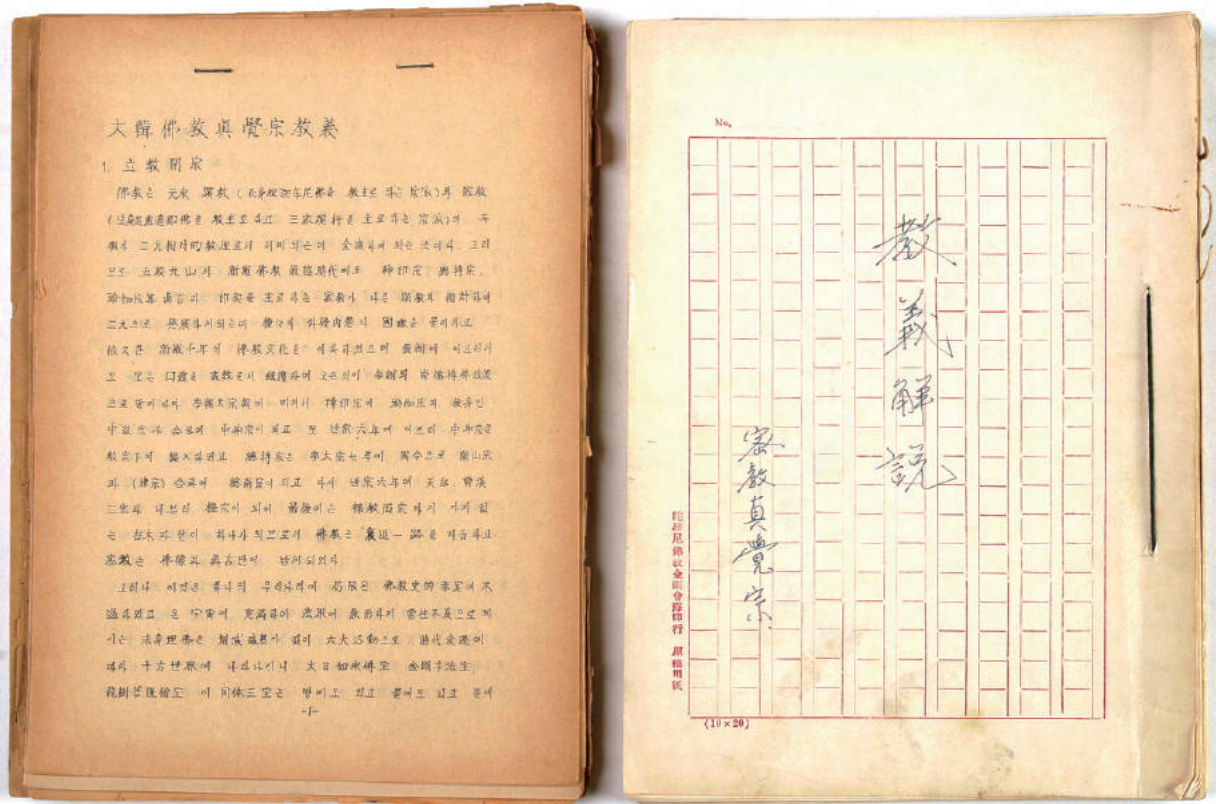
<27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누구나 대성사를 만나면 첫째는 엄숙함에
기가 죽고, 둘째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자상함에 마음이 풀렸다고 한다. 교인을 대
하는 자세는 자기 수행의 과정과 결과일 뿐
아니라, 몸과 마음과 말이 진실에 다가선 증
거가 된다. 세상 사람은 스승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진리에 다가설 수 있고, 거기에 절망할
수도 있다. 한쪽에서 불교를 내세우며 전쟁
을 벌일 때 대성사는 오히려 진실한 모습으
로 세상에 밀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교인들의 질문은 비단 교리와 수행에 대
한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누구나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심인당을 찾았다. 늘 한
결같이 “불공 잘 하면 감응을 얻는다.”고 답
했지만, 반드시 종교적인 가르침만 준 것은
아니었다. 마음에서 일어난 번뇌는 마음잡
는 길을 알려줬다. 세상살이의 고난은 일체
가 무상하며 상황과 조건은 언제나 변한다
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들어 세세히 설명
했다. 미움으로 분노하는 이들에게는 육자
진언으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얻는 길을
일러주었다.

누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했으니 대성사를 만나 말하는 것만으
로도 얽힌 마음의 가시풀이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차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
스승들도 심인당의 운영과 교도를 대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대성사를 찾아와 속을 털
어놓았다. 어떤 경우에도 싫은 기색을 보이
지 않고 진심을 다해 자신이 아는 바를 나누



진각종 재시 교의해설_대성사 육필

었다. 당시 대성사로부터 길을 찾은 이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다.

“평범한 이야기 같으나 남이 보지 못한 길
을 알려주셨다.”
“어렵지 않게 일상적인 말로 깊이 있는 세
계를 전해주셨다.”
가르침의 가피를 입은 이들의 공통된 기
억이다.

그 전하는 방법이 샅되거나 경전을 벗어
나거나 확신 없는 말이 아니라 듣는 즉시 매
듭이 풀리는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한 번
들으면 모든 의문이 풀리는 확실한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말은 쉬우나 길을
여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자기 앞에
막힌 길이 있으면 ‘대성사를 찾으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한 일로 여기게
됐다. 삼밀의 가르침은 경전 속 내용이 아니
라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실제
가 됐다.

경전 번역과 의궤의 제정, 그리고 스승들
에 대한 교육에 전념하고 있을 때 종단의 미
래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큰 결정이 내려

진다. 당시 진각종은 종단의 최고 지도자를
‘널리 가르침을 펼친다’는 뜻으로 선교(宣
教)의 칭호로 불렸다. 초대 선교는 회당 대
종사이다. 명실공히 종단을 이끄는 최고 책
임과 권한을 가진 이가 진각종 선교이다.
종단이 점차 안정기를 지나 발전기에 들
어서면서 조직은 커졌고 한 사람이 행정과
교법을 모두 통솔하기보다 이원적인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인 선교 위
에 상징적으로 교법의 대표 격인 인정(印定)
이란 지위를 새로 만들었다. 인정은 심인(心
印)의 인정(認定)을 뜻하는 말이다. 현교 교
단의 종정(宗正)에 해당하는 지위이다.

1957년 11월 18일 대성사는 진각종 선교
로 추대된다. 전쟁 중 입교하여 그야말로 이
른 시일 동안 교단의 기틀을 잡고 교리를 정
비하는 일에 헌신한 결과를 종단 안팎에서
공인한 결과이다. 1955년에 정사로 승진한
후 2년 만의 일이니 대성사에 거는 종단의
기대를 읽을 수 있다. 종단의 크고 작은 일
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교당을 세우는
건축 불사까지 대성사의 주도로 진행되었
다. 오랜 공직생활과 꼼꼼한 성품 탓에 장부
를 살펴 작은 허점도 용납하지 않았다. 실수

나 잘못이 드러나면 당사자를 힐난하기보다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
잘못을 공력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일하는 이들로부터 원망 사는 경우가 없었
다. 당시를 회상하는 이들은 장부를 펼쳐 논
길만 스쳐도 잘잘못이 드러났다고 한다.

종단 일을 하다 보면 대성사에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자주 겪게 된다. 대성
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대에 휘둘리
며 자기 운명과 이해를 남에게 맡기지 말라
는 말로 타일렀다. 어느 누군가의 행동으로
자기 마음의 혼란과 신앙의 곡절을 겪게 된
다면 시비로 진리를 훼손하는 일도 생긴다
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공평함을 잃
지 않았고 잘못은 적절한 방법으로 바로 잡
았다.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이도 그 경과에
따라 다른 책임을 주어 잘못을 만회할 수 있
도록 이끌었다.

종무를 이끌어 종단의 성장을 탈 없이 주
도했던 것도 선교로서 대성사의 업적이었
다. 이로써 교단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겪을
수 있는 잡다한 시행착오를 건너뛰고 완전
히 자리를 잡았다. 전국 심인당 건설도 대성

사의 관리로 여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중에도 교리와 수행체계의 정비에 특히
힘을 기울였는데, 무엇보다 밀교 의식을 정
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의식과 의궤
가 밀교의 생명이며 비밀한 힘을 체험하는
핵심이라는 믿을 때문이었다. 의식이 없는
밀교란 현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대성사
의 지론이다.

“밀교란 의식을 주로 한다. 의식이란 특정
한 시기에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그것이 의
식이요 제천祭典이다. 또 특정한 장소가 일
반의 장소와 구별되는 것도 종교의 특색이
다. 예를 들면 도량, 불단佛壇 등과 용구用
具, 언어, 행동 등이 구별되어 일상생활과
달라서 시간時間, 공간空間, 물체物體, 동
작, 언어 등이 성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대하여 일상생활을 세속적世俗的이라고
하고, 순물교적인 생활을 출세간적出世間的
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법계의 감응이 있으려면 밀교
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밀교의 각종 불
공법과 의궤, 그리고 진언의 규정은 대성사
가 현대 한국 밀교 의식을 기초부터 쌓아 올
린 대표적인 성과이다.

1958년 드디어 경전의 정수를 모은 ‘총지
법장’이 완성돼 4월 20일 대구 남산동 심인
당에서 배포 불사가 진행됐고, 6월 15일에는
‘응화성전’이 간행됐다. 밀교의 뼈와 살
이 이루어진 것이다. 왜 이 시대에 밀교 수
행이 필요한 것인지, 현교와 어떤 부분이 같
고 상이한 것인지가 정립되었다. 경전을 배
포하면서 대성사는 늘 간절히 당부했다.

“경전 말씀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
르침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 경을 대할 때
는 언제나 지금 내 앞에서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 이 가르침을 편다고 받아들여야 합니
다. 그것이 부처님을 친견하는 길이 되고,
불보살님의 가지를 입는 방법이며, 법계와
일체가 되는 법입니다. 이제 경전이 갖춰졌
으니 진리로 향하는 길잡이 삼아 바른 길로
걸어갑시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
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
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발원’합시다

발원과 욕심의 차이

어느 범회 자리에선가 한 젊은이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욕심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그리고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보직한 의문입니다.

약육강식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짓누르기보다는 무조건 양보하고 욕심을 내지 않으려 하다가는 얼마 안 가 태되고 말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일부 불자들이 무기력해보이며, 세상에 대하여 염세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까닭도 이러한 불교관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발원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삼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을 발한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욕심과는 다릅니다. 욕심과 발원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욕심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바람이지만, 발원은 공통적인 바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만을 위한 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 전체,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남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며, 남이 잘되는 것이 곧 내가 잘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욕심은 본능적인 것이지만, 발원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하지만 발원은 애당초 없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꿈에도 남에게 주고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터 원을 발하여서 자꾸 베푸는 마음을 연습함으로써 아상의 소멸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욕심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발원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한마디로 발원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은 미래에

중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달성을 위해서 때로는 현재를 희생할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발원은 현재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세운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기는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노력하는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발원을 잘 한다는 것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보건대, 발원은 참다운 자기전환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업과 생이 아니라 원생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업생이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과거의 지은 바 업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생이란 스스로의 삶을 갈무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과거의 업을 벗어나 새로운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발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그리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걸림이 없다면 그렇지만 마음 속 어딘가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즉 못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의욕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원을 세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발원을 세우는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탐·진·치 모두가 근본 번뇌를 대표하는 것으로써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 된 속성입니다. 욕계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심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수반하여 성냄과 어리석음 등이 쉽사리 따라붙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따라서 이러한 삼독 가운데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유난히 욕심이 많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며, 어떤 이는 지극히 우둔한 경우 등입니다. 알고 보면 여기서의 욕심이라든가 성냄 혹은 우둔함 등은 사실 그 자체로서는 선도 악도 아님니

다. 다만 일종의 에너지, 즉 방향성 같은 것 일뿐입니다.

발원이란 그 탐·진·치라는 속성 에너지의 방향전환입니다. 그것은 욕심을 완전히 부정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욕심을 인정하고 다만 방향을 바꾸어 도(道)심으로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이는 성욕, 식욕 등의 기본적인 욕심을, 붓다를 보고자하는 욕심, 불법을 깨치고자 하는 욕심, 계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으로 전향시켜 신심이 강한 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잘 내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회피하고 남의 과실을 보아 넘기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성냄의 대상을 전환하여 일체의 유위법을 회피하고 자신의 과실을 참지 못하도록 한다면, 뛰어난 관찰력에 힘입어 남보다 훨씬 잘 깨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이는 오히려 인내심이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직 앞을 향하여 뚝뚝뚝 걸어 나가는 황소처럼 옆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장애를 없애 나가면서 통찰을 확립해나가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발원의 연습과 실행

불교의 특징은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원을 다져나가 실행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단계로서 ‘의도대로 행동하기’를 연습해 보기로 합니다. 이것은 선의도, 후행동을 말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자신의 행동을 의도하는 대로 좇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손을 들거나 발을 떼는 등의 낯날 행동에 앞서 마음으로 먼저 읊은 연후에 천천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의도가 오히려 이를 뒤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생인 것입니다. 최초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신의 육체와 환경이 설정되었음을 망각한지 오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의도한 후 행동하는 연습을 통해서 태초의 자기 모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관찰되고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에게 맞는 발원 즉 목표의 설정이 되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발원을 가질 경우 발원은 성취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장단기 목표를 세워서 바라는 바를 쉽게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항상 완벽하고자 하는 목표와 마음이 편안하고자 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는 어느 쪽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완벽주의자이면서 스스로나 상대방을 편한게 해주는 이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로 돈에 대한 경멸을 가진 이가 한편으로는 부유해지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 부유해지고자 한다면 돈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에게 다가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돈을 더러운 것이며 부자는 대개가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부유하기를 바라다면 성취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집단의식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 받고, 지배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



진주 화음사 관세음보살상

다. 그러한 집단의식 가운데 하나로써, 돈을 좋아하는 이를 천박한 이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돈을 싫어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당당하게 발원하십시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명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할 때 돈이나 명예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애착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애착과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다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애착입니다. 그러나 돈을 귀중히 여기고 돈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진정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예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밝힌 욕심과 발원의 차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1월 21일 ~ 1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법등	12/19	50,000
관성사	김병석	11/21	10,000
	보명심	12/18	10,000
	우인	12/20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12/20	20,000
	수중원	12/20	10,000
	밀공정	12/20	10,000
	선도원	12/20	10,000
	법지원	12/20	10,000
	일성혜	12/20	10,000
	사홍화	12/20	10,000
	안주화	12/20	10,000
	진일심	12/20	10,000
	시각화	12/20	10,000
	최상관	12/20	10,000
	연등원	12/20	10,000
	자선화	12/20	10,000
	승효제	12/20	10,000
	주신제	12/20	10,000
	신말심	12/18	20,000
단음사	장정숙	12/18	10,000
덕화사	법상인	12/18	20,000

동해사	김진화	12/9	10,000
	송인근	12/20	10,000
	법선	12/20	10,000
만보사	강명순	11/30	10,000
	홍도열	12/7	10,000
	이종구	12/11	7,000
	홍도열	12/11	10,000
밀인사	김정희	12/19	10,000
	임명재	12/3	120,000
	덕광	12/11	20,000
법천사	반야심	11/30	10,000
	박미경	11/27	10,000
	인선	12/20	10,000
법황사	정계월	12/20	10,000
	승원	12/20	10,000
	묘원화	12/20	10,000
벽룡사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12/1	80,000
사원명무기명	강숙자	11/24	10,000
	하명순	11/27	10,000
	박필남	12/15	10,000
	박현정	11/25	2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나석원	11/27	50,000
	정윤영	11/28	10,000
세곡 키움센터	김경희	11/30	20,000
수인사	법상	12/18	20,000
시범사	혜광	12/10	10,000
	이순영	12/10	20,000
실보사	서령	12/13	10,000
	혜원정	12/13	10,000
실지사	황성녀	12/4	10,000
	유승우	12/12	10,000
	이도현	12/12	10,000
	이서현	12/12	10,000
	이루나	12/12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11/24	80,000
일원 어린이집	연명구	11/24	10,000
	하재희	11/27	80,000
	김경희	12/18	30,000
자석사	도우	12/11	10,000
	지현	12/11	1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11/27	80,000
정각사	진여	11/27	10,000

정각사	김점남	11/29	20,000
	탁상달	12/11	10,000
	노점호	12/12	10,000
	안한수	12/17	10,000
제석사	이진승	11/30	10,000
지인사	유지호	12/5	20,000
	유선호	12/5	20,000
초록 어린이집	유지영	12/4	80,000
총지사	백귀임	12/11	10,000
	최영아	12/11	10,000
	신현대	12/12	10,000
통리원	김평석	12/19	10,000
화음사	강동화	11/24	10,000
	무명씨	12/4	10,000
	박대성	12/6	20,000
	박옥자	12/11	10,000
	무명씨	12/11	30,000
	원당	12/20	50,000
	묘심해	12/20	5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12/11	80,000
*포항 대련리 후원금			
기로스승	총지화	12/21	20,000
관성사	우인	12/21	100,000

*포항 대련리 후원금

기로스승	총지화	12/21	20,000
관성사	우인	12/21	100,000



경허스님의 선밀쌍수 ①

조선말 일제강점기를 앞둔 어려운 시기에 한국불교의 스승으로 시대를 이끈 경허성우(鏡虛惺牛, 1849 ~ 1912)가 있다. 경허는 선승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 이전 화엄을 공부하고, 밀교를 익힌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경허는 1849년 전라북도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해 부친을 여의고, 9세에 과친 청계사로 출가하였다. 계허 밑에서 5년을 보내고, 한학을 배웠다. 동학사 만화에게 불교경론과 제자백가를 익혔다.

경허의 공부가 알려지면서 동학사의 강사로 추대되고, 많은 승려들도 모여 들었다. 1879년에 옛 스승 계허를 찾아가던 중 돌림병이 유행하는 마을에서 쫓겨나 죽을 앞에 문자가 소용없음을 알았다. 동학사로 돌아와 오맹정진 끝에 누군가 ‘소는 소로되 콧구멍 없는 무쇠소로다[牛無鼻孔]’라는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이후 경허는 선사를 자칭하고 스스로 청허후정의 11대손, 환성지안의 7대손이라 밝혔다. 1884년 천장암에서 만공, 혜월, 수월, 한암, 만해 등 근현대 불교계 선승들을 무수히 배출하였다. 경허가 불사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선원이 건립되면서 불교계는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경허는 57세 홀연히 박난주라 개명하고 갑산, 강계 등지에서 서당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64세(1912년) 4월 새벽 임종계를 남긴 뒤 병 없이 앉아서 입적하니 세수 64세, 법랍 56세였다. 제자와 만해는 경허의 어록과 행장을 모아 『경허집』을 남겼다.

경허가 남긴 글과 시는 형식에 자유롭고 모든 경계를 초탈하였다. 선이 중심이 되었지만 화엄과 정도, 유가에 끌려 밝았다. 교학을 중시해 선교겸수의 가치를 세웠고 이제와 요의, 불요의를 알아 불조의 해학에 정통하였다. 경허의 오도와 행적은 선밀겸수의 근대 조사로



경허 스님 진영

일컬을 만한 흔적이 있다. 그의 오도송으로 유명한 구절은 빼놓을 수 없다.

有人爲戲言作牛無鼻孔
콧구멍 없는 무쇠소라는 말 장난에
因於言下悟我本心
말을 마쳐자 나의 본심 깨달았네.
名亦空相亦空
명(名)도 공하고, 상(相)도 공해
空虛寂處常光明
공한 적정처에 광명이 나오네
從此一聞即千悟
한 번 듣고 천 가지 이치를 깨달으니
眼前孤明寂光土
눈앞에 홀로 밝은 적광토요
頂後神相金剛界
정수리 뒤에 신령한 금강계라.

‘콧구멍 없는 무쇠소’는 지금도 선가의 유명한 화제이다. 선가는 조사의 어록을 참구하는 조사선의 전통이 있는데, 송시대 설두중현과 원오극근, 대혜에 의해 『벽암록』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무쇠소’는 알음알이의 논리적 굴레를 깨뜨린다. 경허는 무수한 경권을 공부했지만 그를 오도로 이끈 것은 명상에 갇힌 무명을 비로소 벗은 것이다. 오도송에서 적광토

와 금강계는 화엄과 밀교를 익힌 경허의 이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허의 깨달음은 종교적 치장의 여유도 허락지 않는다. 인간의 지극한 현실이 곧 지극한 진리가 되어야 한다. 경허는 오도 후 홍주 천장암, 서산 개심사, 부석사를 오가며 선풍을 크게 진작 하였다. 선사는 세속에 몸을 두고도 그가 있는 곳은 진도이자 진신이요, 법략의 적정처였다. 어쩌면 한국의 선밀겸수의 풍도는 경허에 의해 완성된 것인지 모른다. 오도는 결코 성불의 궁극이 아니다. 성불의 기연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오도의 순간 미오의 분별을 두지 않는다.

밀교는 도량과 의례로 이루어져 있다. 형식의 껍적을 방편으로 두지 않으면 인간사 아사리의 부축은 하릴 없이 흩어진다. 밀교는 먼저 해학을 갖추고 아자관 등의 소연을 방편으로 삼아 명상(名相)의 공성을 참구한다. 밀교의 도량과 의례, 성취법은 해학의 기초와 수습의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학과 수행의 기초 없이 ‘미생전본래면목’의 참구부터 달려들면 무명의 욕망이 우선인 내면이라면 들판의 소처럼 먹거나 버릴 것을 알지 못한다. 경허는 사부대중에게 함마진언을 가르친 흔적이 보인다. 또한 경허는 미래 불자들에게 육자진언과 준제진언을 법어에 남겼다.

『경허집』의 법어는 잘 알려진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육자대명왕진언, 준제진언의 소개로 끝을 맺는다. 진언은 세간의 복덕과 출세간 수행의 기본이 된다. 선사는 대중에게 함마진언도 가르쳤다. 선사의 선밀겸수는 다루지 않은 글 가운데 더욱 드러날 것이다. 현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선사의 가르침처럼 오계를 통해 인간의 기본을 갖추는 복전을 닦아야 한다. 선사의 선밀겸수의 가르침이 더욱 필요한 시대이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원
정성준 연구원

남해 정사의



나의 중국불교 체험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2차 한국불교수행자 중국불교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행사는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고, 각 종단 참가자 23명이 인천공항에 20일 오전 6시까지 집결해 행사 장소인 중국 광둥성 하원시에 있는 연암 육조고사로 출발하는 일정이라 전날 밤 영천 단음사를 출발하여 경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밤 11시 50분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시간의 이동을 끝내고 20일 오후 4시경 연암 육조고사에 도착하게 되었다. 육조고사는 육조 혜능 스님께서 은둔하며 수행했던 곳으로 전해지며, 이곳 주민들이 육조스님이 수행하시던 곳이라 하여 육조고사로 이름하였다고 한다. 첫날은 육조고사 참배와 환영 인사로 마무리가 되었다.

둘째 날 새벽예불로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예불은 1시간 정도 서서 진행되었으며 가끔씩 절을 하였다. 집공자의 선창과 동발의 율림에 맞춰 경전을 독송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단지 언어적 차이와 목탁과 동발의 법구의 차이 정도, 함께 참가했던 타 종단 스님들은 예불의 차이점이 서서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데 서서하는지 앉아서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후시간에는 중국 참선수행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반나절의 일정으로 진행된 참선수행에 대한 설명과 실참으로 중국불교의 수행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나, 참선수행에 대한 설명에서 받은 느낌은 사띠와 사마띠의 중간형태로 간화선보다는 위빠사나 수행(사념처 수행)에 가까웠으며 수행의 준비사항은 위빠사나 수행과 거의 동일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며, 실천하는데 있어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펼쳐보이신 많은 수행의 가르침 중에서 자신의 성품과 근기에 맞는 수행법으로 시작하여 수행의 근기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수행일정중 광동성의 여러 사찰을 방문하였는데 그중 남화선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남화선사는 육조 혜능 스님이 30년간 법을 펼친 사찰로 옛 이름은 보림사이다. 남화선사의 입구에는 ‘조계(曹溪)’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조(曹)씨가 많이 살던 마을 앞개울이란 뜻으로 남화선사 뒤편 산 이름도 조계산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종단 조계종이 이곳 이름에서 비롯되었으니 남화선사는 조계종의 시원(始原)이라고 할 수 있다.

남화선사에 도착하여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패방을 지나 큰 글씨로 조계라고 써 놓은 편액이 걸려있는 남화선사의 정문인 조계문을 통과하여 남화선사의 조전에 도착하였다. 조전에는 좌선한 채 열반한 모습 그대로 보존된 혜능 스님의 진신상인 등신불이 봉안돼 있다. 진신상은 보존을 위한 옷칠 때문에 얼굴이 새까만 점을 제외하고는 1천300년 동안 변치않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경외심이 들었다.

이번 수행체험에서 2008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진행한 종단 실무자 대만불교체험 프로그램에 같이 참가했던 조계종 실무 담당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당시 대만불교체험에 큰 감명을 받아 대만 불광산사에 5년간 유학을 다녀왔다고 한다. 인연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타 종단 여러 스님들을 만나보니 우리 총지종이 참 좋은 종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불	교	총	지	종		갑	진		고
	세		구		장	갑			집
	발		촌			증	거	인	멸
풍	전	등	화		관				도
비		신			세	상	살	이	
박		불	협	화	음		랑		
산	책				보	리	살	타	
	상		불	화	살		랑		추
너	머			초		축			상
	리	더	십		지	구	온	난	화

강남구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서초구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강남구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원장

성남시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원장

종로구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원장

강남구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원장

강서구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원장

강남구
미미위 세곡키움센터
이지희 센터장

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센터장

성남구
양지동 제1복지회관
서영주 관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謹賀新年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동지 팔죽 드시고 따뜻한 겨울 나세요”

서울 총지사·부산 정각사, 거리로 직접 나가 500그릇 나눔



절기상 동지를 맞아 지난 22일 서울 총지사(주교: 록경 정사)와 부산 정각사(주교:범일 정사)가 사원 일대 거리로 직접 나가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팔죽 자비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작은설로 불리는 동지의 세시 풍속이 점차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동지를 알리고, 기후환경극복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최하는 팔죽 나눔행사에 종단이 동참하면서 이루어졌다. 오전 동지 불공을 마친 교도와 종무원들은 사원에서 직접 쥔 팔죽을 500개의 에코 컵에 정성껏 담아 ‘지구정정 마음정정’ 팜플렛과 함께 일일이 시민들을 만나며

팔죽을 전달했다. 록경 정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지팔죽 드시고, 액운도 떨치시고 동지를 시작으로 낮이 길어지듯이 모든 분들의 행복도 점차 늘어나시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 명절로 동지는 지난날 18일 국가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됐다.



부산경남신정회 지회 류길자 지회장 재선임

2023년도 결산보고 등 지회 한 해 마무리

부산경남신정회지회 신임 지회장에 현 류길자 지회장이 재선임됐다. 부산경남신정회지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진주 화음사에서 지회모임을 갖고 2023년으로 5년 임기가 끝나는 류길자 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또 이날 허태연 부지회장(성화사 신정회장), 이지은 부지회장(자석사 신정회장)과 조항선 지회총무(정각사), 신혜영 지회총무(법성사 신정회장)도 함께 연임기로 결정했다. 류길자 지회장은 “사원 간부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열렬한 호응에 깊이 감사드리며, 종단과 부산경남신정회지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3년도 결산보고와 함께 총기52년 지회일정을 마무리했다.



2024 갑진년에는 이렇게 살자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치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한 시간이고, 가장 현명한 시간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시간이며, 가장 뿌듯한 시간은 성공한 시간이고, 가장 달콤한 시간은 일한 뒤 휴식시간이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바로 사랑하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2024 갑진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행복한 하루의 출발은 바로 좋은 아침의 기운에서 시작되듯 갑진년 새해의 출발은 신년 첫날의 기운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하루를 내실 있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게 하려면 스스로 정진하고 노력하며 나아가 항상 자신의 가슴에 기쁨을 가득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가슴에 담아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자신의 일상을 늘 희망의 꽃을 피운다는 자세로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 희망의 꽃을 피울 때만이 진정한 희망(希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2024 갑진년에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자기에(自己愛) 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며 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인간들의 웃음꽃 속에는 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만 불의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여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다고 고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나 상아탑(象牙塔)에 이르는 길은 힘들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새해에는 항상 타인 존중 정신과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갈 때, 이는 결국 나에겐 10배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주변과 이웃에게 끊임없이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육체적 욕망을 해결해 주는 샘터의 샘물은 파내면 파낼수록 더 맑아지게 마련입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인간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약속을 사람이 지키지 못한다면 하늘 또한 결코 지켜주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은 결국 자신을 붕괴시키고 남을 파괴하는 폭탄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가끔은 즐겁게 손해를 보며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삶의 섭리는 일시적인 그 손해 다음에는 반드시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늘 창공을 바라보며 푸른 꿈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은 푸른 꿈을 안겨주는 행운의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하찮은 풀 한 포기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일상도 항상 감사할 일만 생기게 됩니다.

남의 훌륭한 점을 보았을 때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치게 되면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울러 복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늘 고운 말과 아름다운 말만 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은 자신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항상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축복해 주는 대상을 더 많이 축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우리 교도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마음청정 지구청정

Pure Mind. Pure Earth

『기후 환경 위기 극복 불자행동 캠페인』 “생활속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소욕지족 少欲知足 운동
물질은 소박하게 마음은 풍요롭게

- 적게 소유하며 검소한 삶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누리겠습니다.
적게 구입하고, 오래쓰며, 윤리적 소비로 살기
- 자연과 이웃 덕분에 살아감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연과 이웃의 은혜 알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베풀며 살기
- 본래 내 것은 없음을 알고, 나누고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무소유와 나눔, 자비의 마음으로 돌봄과 배려의 삶을 살기
- 위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함꼐하며 공동체로 살기



수치작주 隨處作主 운동
나를 바꿀 세상을 바꾼다

-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회를 다스리며 수행과 평화경상 생활화하기
- 쓰레기 제로의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우공양, 일회용품 사용금지, 비닐 플라스틱 사용절제, 농어촌 쓰레기줍기
-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자동차사용하기
- 채식위주의 식사와 발우공양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장려하여 소식하는 빈그루운동 실천하기



생명환생 生命換生 운동
우리가 살리면 우리도 살린다

- 동물을 보호하고 살리며,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대적 방생실천, 실처분안대, 동물권옹호, 미래세대견리 옹호하기
-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만큼 나무심기, 산길제도 부활, 사찰숲가꾸기
- 농업을 지키고 자립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자립지원, 텃밭가꾸기, 귀농귀촌지원, 농촌공동체만들기
- 개발보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금지, 자연서식지 습지 보호, 생태파괴기업 투자철회



자업자득 自業自得 운동
미래세대에게 파헤쳐 물려주지 않기

- 환경과 생태문제를 배우고 이웃과 더불어 실천합니다.
종단, 교구별 환경위원회 설치, 환경교육 실시, 조직만들고 실천하기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사찰과 불교시설 태양광 풍력등 재생가능에너지이용, 넷제로(Net-Zero)실천
-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역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순환사회만들기, 전지구적인 문제해결에 참여
- 가난한 이들과 난민,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난민지원, 공정무역,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불교총지종 대한불교대각종 대한불교보문종 재대한불교원효종 재대한불교일암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유종 한국불교미륵종 사)대승불교본원종 사)대한불교원효종 한국불교여래종 보국불교염불종 사)대한불교조동종
사)대한불교법상종 재한국불교법문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화엄종 대한불교법연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대승불교불이종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19>

용의 해를 맞아 정견의 지혜로 만사형통하자

새해는 불기 2568년, 서기 2024년, 갑진년 용띠 해이다.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 불교 경전에 무수하게 등장하는 부처님 법을 지키는 팔부신장(八部神將) 중 하나이다.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 진리를 깨치고 일체 중생들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을 열어 주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인간은 물론 하늘나라 신들마저 감동하여 불법(佛法)을 수호하고 보시 공양을 자처하는데 용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경전에 나온다. 용은 바다 속 용궁에 살며 바람과 비를 불어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불법의 수호신이다. 이런 까닭에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에 다양하게 조성된 용 조각이나 그림을 볼 수가 있다.

용은 불법의 수호신

이런 부처님 법의 수호 신장인 용은 세속 사회에서는 나라의 왕(王)을 상징하였다. 왕이 앉는 자리를 용상(龍床), 왕이 입는 옷을 용포(龍袍)라 하여 세속에서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

세속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용도 불교에서 보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지키는 여덟 신장에 하나이니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세속에서 최고인 왕도 부처님의 지혜 앞에서는 한낱 수호자에 불과하다. 그만큼 부처님의 지혜는 훌륭하고 위대하다. 용의 해를 맞아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 용이 되어 부처님 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면서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여 자기 안의 지혜를 밝혀 영원한 행복으로 가야 하겠다.



만봉 스님 作 십이지신 중 '용'

우리가 부처님처럼 지혜를 밝히려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바르게 공부해야 한다. 부처님은 깨치고 첫 설법인 『조전법륜경』에서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깨달았노라” 하셨다. 이것이 바로 중도대선언이다.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 생사 윤회의 굴레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신 것이다.

중도 공부해 바른 견해 세워야

불교란 곧 중도의 가르침, 중도의 지혜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팔정도, 여덟 가지 바른 길이라 하셨다. 바른 견해인 정견, 바른 사유인 정사유, 바른 말인 정어, 바른 행위인 정업, 바른 생활인 정명, 바른 정진인 정정진, 바른 기억인 정념, 바른 선정인 정정을 말한다.

부처님이 깨친 중도는 곧 팔정도

이다.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말하니 좀 복잡하다. 그러니 팔정도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정견(正見), 바른 견해에 주목하자. 바른 견해만 세우면 나머지 일곱 가지가 저절로 되니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정견을 갖추는 것이다.

정견이란 중도로 보는 견해를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불자라면 누구나 중도를 공부하여 바른 견해를 세워야 한다. 중도에 정견이 서면 지혜가 난다. 중도 정견의 지혜를 반야(般若)라 한다. 우리가 조식 예불할 때나 범회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반야심경』이 바로 이 중도 정견의 지혜를 설한 경전이다.

부처님은 이 중도 정견의 지혜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반야심경』에서는 ‘마하 반야’라 하여 큰 지혜라 하셨고, 『금강경』에서는 ‘금강 반야’라 하여 금강석 같이 단단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지혜라 하셨다. 누구든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공부하여 정견을 갖추면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가 나서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용은 여의주가 있어야 능력을 발한다고 하는데, 불자들에게 정견은 여의주와 같은 것이다.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불자들이 중도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심으로 기도 정진하여 정견의 지혜를 원만 구족하기를 바란다. 용에게 여의주가 생명이듯이 불자라면 중 정견의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새해에 만사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정견의 지혜를 부지런히 계발하자. 그러면 만사가 저절로 원만해질 것이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석관실버복지센터,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후원자·자원봉사자 송년의 밤 개최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지난달 12일 올 한 해 동안 센터와 함께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50여 명과 함께 ‘후원자·자원봉사자’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한 해 동안 센터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연간 활동 보고, 우수 자원 봉사 단체 감사장 전달, 만찬회 순으로 진행했다. 이 외에도 신상철 성북구청 부구청장, 기동민 국회의원이 참석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지난

2022년 2월 센터의 특화사업인 ‘두뇌건강증진센터’ 공동 운영 협약으로 두뇌건강학습지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2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의대생 연합 봉사 동아리 ‘메디하나’에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 센터장은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올 한 해도 센터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후원자·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후원자분들의 소중한 인연이 계속되어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뜻을 함께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원효의 눈으로 바라본 반야심경



강승환 편저
판형 신국판(무선) 336쪽
가격 18,000원

한국불교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은 무엇일까? 단연 『반야심경』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저녁 예불 때 빠짐없이 독송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짧고 간략하여 스님이나 불자들이 언제든 어디서든 쉽게 독송하고 있는 경전이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로 이 경전을 그렇게 많이 독송할까? 흔히들 붓다께서 설한 8만4천 대장경을 210자로 압축해 놓은 것이 『반야심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반야심경』은

대승불교에서, 특히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오로지 원효의 안목으로 『반야심경』을 번역하고 주석하고 해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효가 남긴 저서들에 담긴 내용과 교리 사상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반야심경』의 경문 내용 하나하나를 번역하고 해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책은 원효대사가 남긴 수많은 저술 가운데 『반야심경』의 내용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글을 찾아내어 『반야심경』의 경문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있는데, 전체를 색(色), 공(空), 마음, 수행, 원효의 다섯 장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반야심경』을 해설하는 데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원효의 저서는 물론 반야경 전체의 핵심을 담은 『대혜도경종요』이지만, 그 외에도 원효의 대표적인 저서들인 『이장의』,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금광명경소』 등 다양한 저서들도 총동원되어 적재적소에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원효의 사상적 관점에서 바라본 『반야심경』의 정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HAPPY NEW YEAR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처님의 가지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서울경인신정회 지회장 박정희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부산경남신정회 지회장 류길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대구경북신정회 지회장 윤복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충청전라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2024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따뜻한 겨울나기 500만원 기탁



‘2024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강남구청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캠페인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이다. 모금은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 부제는 ‘우리동네 나눔캠페인’으로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 돕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모인 성금은 쌀, 김치 등 식료품이나 각종 생활용품으로 구매되어 홀몸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한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포항 수인사, 양지1동복지회관 온정 가득 김장 김치 이웃과 함께 ‘자비나눔’

포항 수인사(주교: 범상 정사)가 지난달 2일 수인사 신정회와 봉사단체 수인회와 함께 2023 ‘김장김치 이웃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수인사가 위치한 중앙동 관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겨울철 대표적 자비나눔으로 올해로 10년 째 이어오고 있다.

사원의 교도들을 비롯해 김장제 국회의원, 김상일 시의원, 중앙동 이도희 동장 등이 동참해 김치를 담그고 포장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이 준비한 배추 350포기는 100개의 김장 박스로 포장되어 해당 세대에 전달됐다.

범상 정사는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장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자비나눔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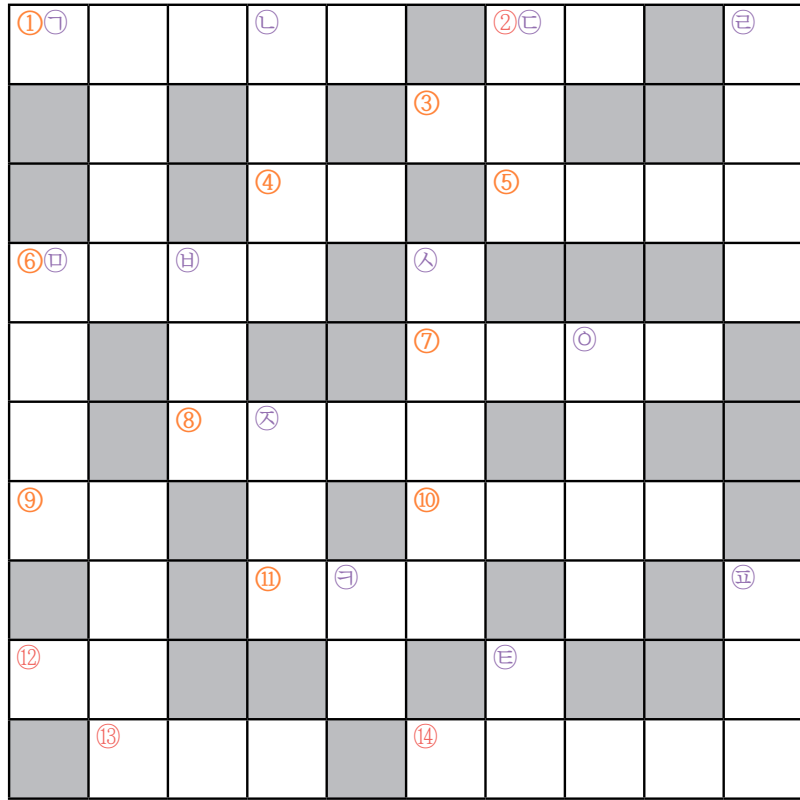
이에 앞서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 산하 성남 양지동제1복지관(원장: 정동숙)도 지난 11월 15일, 16일 양일간 ‘온기가득 김치 나눔’ 행사를 갖고 관내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김장을 담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과 아름다운마음봉사단 단원 그리고 김태년 국회의원, 최만식 도의원, 박기범, 구재평 시의원 등이 동참해 야채 손질부터 양념버무리기, 포장까지 함께했다. 총 100박스에 담겨진 김장 김치는 따뜻한 수육과 팔설기와 곁들여 해당 세대에 전달됐다.

김치를 전달 받은 한 어르신은 “요즘 건강도 안 좋고 날도 너무 추워서 이번에는 김장을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었는데, 이렇게 직접 담근 김치를 받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해왔다.



가로세로 총/지/문/답



가로 열쇠

- 한국 전통 밀교종단으로 자리이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
- 올해는 용의 해로 00년
- 손이 시려워 꿰~ 겨울바람 때문에~
- 생활 주변의 재미나고 우스운 일을 소재로 만든 극
- 증거가 되는 것을 모조리 숨기거나 없애는 일
- 바람 앞의 등불
-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 의견이나 주장이 엇갈려 융합되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느긋한 기분으로 한가로이 거닐
- 보살은 팔리어 0000의 줄임말
- 축 끝에 불을 붙여 사용하는 화살
- 산이나 담, 고개, 무지개 같이 높은 것의 저쪽
- 무리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 지표 부근의 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세로 열쇠

- 종교의 형세가 나날이 나아가는 모습
- 지구상의 모든 국가나 지역이 한마을처럼 가까워짐
- 지루하고 속이 답답한 증세
- 불교의 근본 원인인 사성제를 이르는 말
- 산산이 부서져 사방으로 날아가거나 흩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람의 키만 한 정도로 만든 불상
-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한다는 보살
- 가벼운 물체나 물결 따위가 바람에 조금씩 자꾸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모양
- 불상이나 불화에서 본존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
-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관념적인 공부나 생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꽃이 피는 풀과 나무
-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
- 사실대로 형상화하지 않고, 점이나 선, 면, 색채에 의한 표현을 목표로 한 그림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국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음흉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 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 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곡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락곡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견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길 20-1 (구정동17가)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7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윤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갑진년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종 령 법공 대종사

통 리 원 장 우인 정사 종 의 회 의 장 법상인 전수 사 감 원 장 법일 정사

본산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룡경	관성사 주교 우인	관음사 주교 정인화	건화사 주교 도관	만보사 주교 유가해
재무부장 승원	밀인사 주교 덕광	단향사 주교 지홍	개천사 주교 인덕심	법황사 주교 인선
교정부장 보현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해안정	중원사 주교 정정심
총무원 일동	벽룡사 주교 승원	밀행사 주교 행원심	단음사 주교 일진	혜정사 주교 진일심
중앙종의회	시법사 주교 해광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림사 주교 수현	흥국사 주교 인선
사감원	실지사 주교 서강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자심관	
원의원	지인사 주교 법우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법상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총지사 주교 룡경	실보사 주교 서령	승천사 주교 지선행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원만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법장원		자석사 주교 도우		
중앙교육원		정각사 주교 법일		
밀교연구소		화음사 주교 묘심해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동해사 주교 법선		